

‘성삼재 고속버스’ 갈등 해소되나

〈서울~지리산 운행〉

구례 천은사~남원 19.8km
‘지방도’서 ‘군도’로 전환
통행권 구례군으로 이관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를 오가는 지리산도로인 ‘지방도 861호선’이 구례군이 관리하는 군도로 전환된다. <구례군 제공>

서울-지리산 성삼재 간 고속버스 운행(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고단 성삼재를 오가는 지리산도로(지방도 861호선)가 ‘지방도’에서 ‘군도(郡道)’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관리권이 전남도지사에서 구례군수로 변경되는 것이다.

10일 구례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리산도로인 ‘지방도 제861호선’의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에서 전북 남원시 경계까지 19.8km 구간을 폐지한다.

전남도가 12일 도보에 정식 고시하면 지리산도로의 공식적인 관리청은 전라남도에서 구례군으로 변경된다. 도로표지판과 도로시설물 등은 전남도에서 일괄 정비한 후 구례군으로 이관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 복구공사는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구례군이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건의한 숙원으로, 전남도의 노선 변경 신청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도로가 ‘군도’로 변경되면 구례군수가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차량의 통행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교통교통부가 전남도와 구례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간 고속버스 운행노선 신설’에 따른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방도 861호선 노선 변경으로 구례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전남도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라며 “구례군이 이를 발판으로 지리산의 환경과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도로의 ‘군도’ 전환에 따라 지방도 861호선에 포함된 남원구간 16.8km는 자체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도 861호선으로 새로 지정된 25.2km 중 구례 산동에서 곡성 고달까지 14.2km는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해 구례군과 곡성군이 이관했던 구간으로,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지정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가 머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동천 출렁다리 야경. <순천시 제공>

‘머무는 관광’ 불 밝힌 순천

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순천만정원 야간개장·야시장 등

순천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머무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을 배경으로 야간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 동문과 서문 습지 주변으로 야간관광조명을 설치했으며 국가정원 내의 꿈의 다리에서부터 출렁다리, 용당교 일원 6km에 이르는 동천 교량과 빛꽃 산책로에도 야간관광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교량 5개소와 빛꽃 산책로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동천 저류지에는 24만 5000㎡의 생활숲과 함께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해 국내 최대의 야시장을 만들고 주변에는 플리마켓을 배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야시장을 야외 숲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내에 있던 야시장의 밀집과 밀폐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야시장은 현재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클린 야시장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처리와 친환경 용기 사용, 오수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과정이 한창이다.

동천 야간관광사업과 인근 야시장 조성은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공간이자 사업이다.

드라마촬영장은 재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함께 야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개최하는 ‘문화재 야행’ 강화와 순천 대표문화콘텐츠의 제작을 모색 중이며 2023정원박람회 기간 상설 공연을 위한 작품 소재를 공모 중이다.

순천시는 머무는 관광을 위해 대규모 호텔보다는 소규모 가족형 호텔 유치를 목표로 ‘한 달 살기’나 농촌체험, 산사체험, 숲 체험 등 생활형 체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집거형 여행자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나 장기대방안을 강구하고 야외 레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캠핑, 차박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심청상품권 할인 10%+적립 5%

곡성군, 모바일페이백 이벤트

곡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심청상품권 5%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곡성심청상품권 모바일 5% 페이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페이백 이벤트는 심청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모바일상품권으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5% 적립이 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심청상품권 10% 할인과 더해 총 1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상품권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만원 캐시백을 추진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5000원 이상 결제자에게는 매일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곡성군은 모바일심청상품권 사용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매일 약 1200명의 군민이 모바일 심청상품권을 사용했으며 결제금액은 18억4400만원이다.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품권 가맹점 81%, 군민 86%가 ‘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여주시·여수산단공발협의회는 지난 6일 여수산단 우순도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청소 및 해양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여주시 제공>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여주시·여수산단공발협 캠페인

여주시·여수산단공발협의회의(이하 공발협·회장 권오봉)가 지난 6일 여수국가산단 우순도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청소 및 수중 정화활동과 함께 해양환경 캠페인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발협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기업사랑협의회, 한영대학교,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우순도 해안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페스티로폼, 페이구)와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해양환

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와 함께 수중 모니터링을 통해 산단 주변 해양 생태 환경을 파악했다.

바다의 골치거리 불가사리를 수거해 ‘바다 사랑’ 글씨를 만들고,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로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공발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및 수중환경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 매화랑 매실이랑’ 전남도 추천관광지 선정

‘매천 황현 생가’도 포함

광양시는 ‘매화랑 매실이랑’이 다채(菜)로운남도밥상을 테마로 하는 전남도 11월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산국가마을에 위치한 ‘매화랑 매실이랑’은 백운산이 키운 고사리, 원추리 등 다채로운 산나물과 매실장아찌·꼬추장, 토마토절임 같은 발효음식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린다.

매실토가스, 매실냉장국수 등 광양 대표특산물 매실을 활용한 이색별미도 맛볼 수 있어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한 식탁을

찾는 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장소로 꼽힌다.

특히 매실을 활용한 떡·김치 만들기 등 향토음식 체험까지 가능해 젊은층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백운산이 거느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관, 돌레길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는 데도 누릴 수 있다.

11월 추천 관광지에 함께 오른 광양 ‘매천 황현 생가’는 1910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한 매천 황현이 태어난 곳으로, 근처 매천역사공원과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